

이는 CSA를 사용함으로써 두 그룹에서 각각 94.1%, 90.4%의 성적을 나타내어도 ABO 부적합성이 이식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.

이상과 같은 결과로 비혈연간 이식이나, HLA항원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면역억제제로 CSA를 사용하여 이식신 2년 생존율 90%이상의 양호한 이식성적을 기대할 수 있으며, CSA를 사용함으로써 이식전 수혈과 같은 수술 전 처치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이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
-52-

신장이식 80예에서의 이식신의 예후

고신외대 내과

편도철 · 황영표 · 이상욱
표 광 민 · 김 영 호
김 흥 기 · 이 시 래

지난 수년동안 공여자 특이수혈(DST: Donor specific transfusion) 및 Cyclosporin A(Cs·A)등의 신장이식에의 이용은 이식신의 성공율을 뚜렷이 올렸지만, 아직도 DST가 이식신의 예후를 좋게하는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고, 또한 DST후에 신이식을 할경우 면역억제제로서 Cs·A+P(prednisolone)의 투여가 DST후 Azathioprine+P의 투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. 연구자들은 1984년 12월부터 1988년 4월까지 3년 4개월동안 고신외대 신장이식팀이 이식한 80예(이중 DST를 시행한 후 이식한 64예 포함)에서 얻은 성적을 보고하고자 한다.

이들 80예에서 HLA identical은 16예(Group I)로 Aza+P로 치료하였고, Haploid identical은 55예이며 이들은 Aza+P로 치료한 18예(Group II)와 Cs A+P로 치료한 37예(Group III)로 나누었다. 혈연관계가 없는 Cs A+P로 치료한 군은 9예(Group IV)였다. 각 Group의 평균 관찰기간은 Group I 14.4개월, Group II 19.3개월, Group III 10.5개월, Group 로사 18.1개월이었다.

DST는 공여자 혈액 100 ml를 1주 간격으로 3회 주사하였으며, 직접 백혈구 교차반응은 DST단독인 10예중 2예(20%), DST+Aza인 55예중 2예(3.6%)에서 양성 을 보였고, DST+Cs A인 3예에서는 감작이 없었다. 급

성 거부반응은 HLA identical인 Group I에서는 14예중 2예(14.3%), Group II 17예중 6예(35.3%), Group III 35예중 14예(40%), Group IV 8예중 3예(37.5%)에서 생겨, Group II, III, IV가 비슷하였다. 그러나, 각 군에서 관찰기간동안 혈청 creatinine이 2 mg/dl 이상인 경우는 Group II와 IV에서 각각 4예(25%), 2예(25%)로, Group I (7.1%)과 III(11.1%)에 비해 높았다.

이상을 요약하면, DST에 따른 감작은 DST+Aza에서 DST단독보다 낮았고, 혈연 Haploid-identical의 이식후 면역억제치료는 Cs·A+P이 Aza+P보다 좋은 성적을 보였다. 그리고 DST+Cs·A의 3예 모두에서 감작이 생기지 않았는데, 예수가 적어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.

-53-

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이식 신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

서울외대 내과

김윤구 · 이종호 · 김윤권
한진석 · 김성권 · 이정상

외과

김 상 준 · 김 수 태

연구자들은 신이식 전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신이식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1979년 1월부터 1987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말기 신질환으로 신이식을 받은 15세 이상의 환자 161명 중 신이식전 방사면역측정법으로 혈중 HBsAg, anti-HBs, anti-HBc가 측정된 134명을 대상으로 이식신 기능정지 및 환자의 사망을 이식신 소실의 기준으로 삼아 생명표법(actuarial life table method) 및 log-rank 분석법(*)으로 이식신의 예후를 조사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.

1) 전체대상 환자에서 평균 관찰기간은 49 ± 32 (1~107)개월이었으며 HBsAg 양성군에서 54 ± 31 (6~107) 개월, 음성군에서 48 ± 33 (1~105)개월로서 양군의 차이는 없었다($p < 0.05$).

2) HBsAg 양성군은 21명, 음성군은 113명이었으며 양성군중 14명, 음성군중 23명에서 이식신이 소실되었고($p < 0.01$) 이식신 생존율은 HBsAg 양성군에서 음성군에 비하여 전 관찰 기간을 통하여 낮았으며 이 차이는